



731부대 유적 출토 음료 유리병의 의미

- 사이다와 맥주를 중심으로 -

Significance of Glass Beverage Bottles Excavated from Unit 731 Sites

- Focusing on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Cider and Beer -

김 동 일

국립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학술연구교수

I. 머리말

II. 731부대 유적 출토 음료 유리병 소개

III. 음료 유리병의 용도와 연대 검토

IV. 생산과 이동 과정

V. 근현대고고학의 역할과 전범 재인식

VI. 맺음말

국문 요약

731부대 유적에서는 다수의 음료 유리병이 출토되었다. 보고된 음료 유리병은 맥주병 6병과 술병 3병이었지만, 분석 결과 맥주병 5병과 와인병 1병, 사이다병 3병임을 확인하였다. 731부대 유적 전 시관에서 추가로 확인한 결과, 미보고된 음료 유리병도 다수 존재하였다. 주목할 점은 필자가 확인한 유리병의 수량은 유적이 폐기된 이후의 조사 자료라는 점이다. 이를 고려할 때, 731부대 활동 당시에는 훨씬 더 많은 양이 보급되었을 것이다. 이에 필자는 어떠한 이유에서 대량의 음료가 보급되었는지와 어떻게 보급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731부대 유적에서 출토된 음료는 주로 사이다와 맥주였고, 이 음료의 생산과 이동에서 특정 인물을 인지할 수 있었다. 그 인물은 네즈 가이치로이고, 그는 1920~1930년대부터 사이다를 일본군에게 납품하였으며, 사이다의 보급은 하얼빈에서 특수감옥과 세균실험실이 운영되는 1940년대까지 지속된다. 이 시기는 일본의 국가 총동원령으로 인해 모든 기업이 위축된 시기였다. 그러나 네즈 가문과 대일본맥주주식회사는 사이다 등의 군수보급으로 인해 계속해서 발전하게 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사이다 등의 음료가 전범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이다. 사이다 등은 기호 음료에 불과하지만, 당시에는 중요 군수품이었다. 네즈 가이치로와 그 가문은 사이다와 맥주 납품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으며,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전쟁의 지지자가 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네즈 가이치로가 사망한 이후에도 네즈 가문과 관련 기업이 이어받아서 수행하게 된다.

필자는 네즈 가이치로와 그 가문의 활동을 여러 시점에 걸쳐 분석하였고, 그와 그 가문이 전범으로 분류될 수 있는 여러 증거를 파악하였다. 그들은 일제 국가 총동원령 전과 후 모두 의도적으로 전범 행위에 가담하였다. 그러나 네즈 가이치로는 일본의 패망 이전에 사망하였고, 사이다라는 기호 음료가 중요한 군수품으로 인식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전범으로 인식된 적이 없다. 이에 네즈 가이치로와 그 가문에 대한 새로운 전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주제어 : 사이다, 731부대, 산업고고학, 산업유산, 근현대고고학, 네즈 가이치로, 네즈미술관, 부국징병보험, 전범

I . 머리말

대중에게 사이다와 콜라는 매우 친숙한 탄산음료이며, 맥주나 와인도 보편적으로 음용하는 주류이다. 콜라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반대로 사이다의 기원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스트라이프나 7UP과 혼동하여 서양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다수이다. 서양에는 일반 대중이 인식하는 사이다가 존재하지 않으며, 그나마 ‘7UP’과 ‘Sprite’가 유사한 제품으로 존재할 뿐이다.

한편, 중국의 ‘설벽(雪碧)’과 ‘칠희(七喜)’가 한국이나 일본의 ‘사이다’와 같은 제품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설벽은 코카콜라 브랜드의 소다 제품이고, ‘Sprite’ 제품이 설벽과 같은 제품이며, 이것은 영어가 중국어로 번역된 것일 뿐이다. 즉, 한국과 일본의 사이다와 중국의 설벽은 다른 제품이다. 이것은 칠희 역시 마찬가지이며, 칠희는 7UP의 중국 생산 제품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사이다’의 경우, 대부분 한국과 일본에서 생산 및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엄격한 의미의 사이다는 동아시아에서도 한국과 일본에 한정적으로 인식되는 음료이다. 이것이 스트라이프 등과 구분이 되지 않아서 사이다가 서양에도 존재한다고 착각하게 되었다.

그런데 사이다가 근대 중국에서 확인된 사례가 있다. 이 사례는 일본군과 관련된 유적에서 발견되었으며 일본군을 위한 목적으로 중국까지 이동된 사례이다. 다른 출토품인 맥주와 와인 역시 마찬가지이다. 두 제품의 표면에는 일본어가 존재하여 중국이나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이 음료 유리병의 생산과 이동에 주목하였다. 일본어가 새겨진 맥주와 와인이 근대의 중국으로 이동되는 과정 등을 밝힌다면 이 역시 일제강점기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서 잊힌 역사를 밝힐 수 있는 물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이 연구는 사이다와 맥주, 와인 등의 생산과 이동 과정을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생산과 이동 배경을 통해 일제강점기 알려지지 않은 사회의 단면을 파악하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덧붙여, 이 연구는 근현대고고학의 한 연구 사례이며, 기존의 방법을 변형하여 접근하였다. 예를 들면, 개개 유물의 생산연대와 유적의 조성연대가 밝혀졌기에 형식학적 방법 중 형식학적 배열만을 응용하여 사용하였다.¹⁾

1) 근현대를 대상으로 한 고고학 연구는 기존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그에 대해서는 필자의 이전 연구(김동일 2020, 2024)에서 상세히 다루었으므로 참고 바란다.

Ⅱ. 731부대 유적 출토 음료 유리병 소개

731부대 유적은 흑룡강성(黑龍江省) 하얼빈시(哈爾濱市) 평방구(平房區) 신장대가(新疆大街) 47호(號)에 위치한다. 이곳에는 731부대의 본부와 세균실험실, 바이러스 실험실, 특수감옥 등이 있었던 곳으로, 여러 차례의 조사를 통해 731부대 유적에 대해 자세히 알려지게 된다.

1987년 5월 23일부터 같은 해 6월 1일까지 기초적인 탐사가 진행되었고, 2000년 8월 3일부터 같은 해 8월 8일까지 조사가 진행되었지만(김동일 2022: 508), 고고학적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2008년 9월 27일부터 같은 해 10월 17일까지 흑룡강성 문물고고연구소(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와 침화 일본군 제731부대 죄증 전시관(侵華日軍第七三一部隊罪證陳列館)의 연구원들이 합동으로 전문적인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김동일 2022: 509). 2014년과 2015년에는 흑룡강성 문물고고연구소와 동북사범대학(東北師範大學) 역사문화학원(歷史文化學院)이 공동으로 중심복도와 세균실험실 등에 대한 발굴조사를 진행하였고, 고고학적 조사 성과는 『侵華日軍第七三一部隊舊址細菌實驗室及特設監獄考古發掘報告』라는 발굴조사 보고서(李陳奇 2018)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공개된 발굴조사 보고서에서는 음료 유리병이 다수 보고되었다. 세균실험실 3동(2014P731SF3)에서 맥주병 2병, 중심복도(2014P731SFZ)에서 맥주병 1병, 폐기구덩이



[그림 1] 보고된 731부대 유적 출토 음료 유리병 사진(李陳奇 2018 수정후 전제)

1-2. 세균실험실 3동 3. 중심복도 4-8. 폐기구덩이 5호(1. 맥주병 2. 술병)

이 5호(2015P731SH5)에서 맥주병 3병과 술병(酒瓶) 3병이 출토된 것으로 보고되었다(그림 1). 술병으로 보고된 사례 1병의 사진은 보고문에서 누락되었다.

맥주병은 갈색인 것과 다갈색인 것, 갈색이지만 약간 투명한 것이 있고, 길이는 28.8cm인 것과 29cm인 것이 있다. 술병은 무색투명한 것과 투명한 녹색인 것이 있고, 길이는 모두 23.4cm이다. 보고된 병은 파손되지 않아서 형태가 온전하게 남아있다(표 1).

[표 1] 보고된 731부대 유적 출토 음료 유리병 목록

출토 유적	종류	색깔	높이	명문
세균실험실 3동	맥주	갈색	29cm	'DAINIPPON BREWERY CO LTD'와 'TRADE MARK' 등
	맥주	갈색	29cm	상동(上同)
중심 복도	맥주	다갈색	29cm	'SAKURA BEER'와 'サクラビール' 등
폐기구덩이 5호	맥주	약간 투명, 갈색	28.8cm	'DAINIPPON BREWERY CO LTD'와 'TRADE MARK' 등
	맥주	약간 투명, 갈색	28.8cm	'NIPPON HACHIMITSU JOZO CO'와 'HONEY PORT WINE' 등
	맥주	약간 투명, 갈색	28.8cm	'キリンビール'와 '登録商標' 등
	술병	무색투명	23.4cm	'日本麦酒釀泉株式会社製造'와 'BNK' 등
	술병	무색투명	23.4cm	상동
	술병	투명 녹색	23.4cm	없음

이외 발굴조사 보고서에 보고되지 않은 대량의 음료 유리병이 존재한다. 중국의 발굴조사 보고서에서는 일부 수량만을 보고하는 사례가 매우 흔하다. 현재 침화 일본군 제731부대 죄증 전시관에 발굴조사 당시 상태로 보존 및 전시된 유구가 존재하고, 그 상황을 살펴보면 더 많은 음료 유리병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그림 2).

실제 출토 자료를 참고하면 731부대 유적에서는 보고되지 않은 음료 유리병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침화 일본군 제731부대 죄증 전시관에서 필자가 확인한 자료의 정확한 규격 등은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보고서의 정보를 참고하여 731부대 유적 출토 전체 음료 유리병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침화 일본군 제731부대 죄증 전시관에서 확인한 자료를 토대로 같은 형태의 음료 유리병이 훨씬 더 많이 출토되었음을 고려할 때, 보고된 음료 유리병의 해석을 미보고된 음료 유리병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그림 2] 731부대 유적 출토 음료 유리병 사진(침화 일본군 제731부대 죄증 전시관 필자 촬영)

Ⅲ. 음료 유리병의 용도와 연대 검토

731부대 유적 출토 음료 유리병에서는 일본어가 확인되므로 일본에서 출토된 음료 유리병을 서로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용도와 대략적인 연대를 파악하고자 하며, 동시에 형식학적 배열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 과정을 종합하여 음료 유리병의 편년을 완성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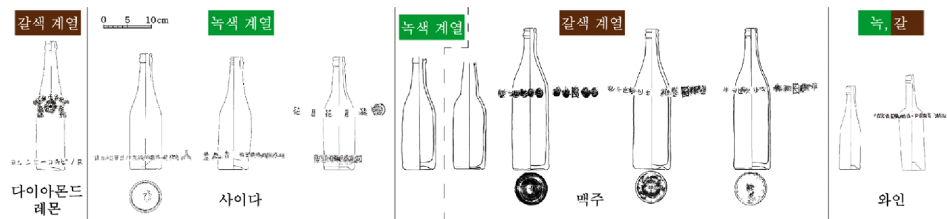
1. 일본 출토 음료 유리병의 소개

일본에서는 가지카자와 하안 유적(鰐澤河岸跡)과 우에다 성터 유적(上田城跡), 나카마치 유적(中町遺跡), 호소야지 유적(細谷地遺跡) 등지에서 근대 사이다(サイダ一)병이 출토되었으며, 공반된 맥주병 등도 함께 분석하였다.

1) 가지카자와 하안 유적

이 유적은 야마나시현(山梨県) 가지카자와정(鰺澤町)의 강변에 위치한다. 유적은 정작과 하천 공사로 교란이 심하다. 음료 유리병이 출토된 곳은 건물과 수로가 존재하였던 곳이다. 사이다병은 7병, 맥주병이 19병, 와인병은 2병, 다이아몬드 레몬(탄산수)병 1병이 출토되었다(山梨県教育委員會・建設省關東地方建設局甲府工事事務所 1998). 온전한 병도 존재하지만, 훼손되어 절반 이하만 남은 병이 다수이다.

사이다병은 녹색 혹은 반투명한 녹색을 띠며, 형태가 온전하게 남은 병을 기준으로 길이는 23.7cm인 것과 24.4cm인 것이 있다. 맥주병은 짙은 갈색을 띠고, 온전하게 남은 병을 기준으로 길이는 29.2cm인 것과 29.3cm인 것, 29.5cm인 것이 있다. 와인병은 반투명한 녹색인 것과 갈색인 것이 있고, 전자는 25cm이며, 후자는 28.8cm이다. 다이아몬드 레몬(탄산수)병은 반투명한 갈색을 띠고, 길이는 27cm이다(그림 3).



[그림 3] 가지카자와 하안 유적 출토 음료 유리병

(山梨県教育委員會・建設省關東地方建設局甲府工事事務所 1998 수정후 전제)

2) 우에다 성터 유적

이 유적은 나가노현(長野県) 우에다시(上田市) 성곽(二の丸)에 위치한다. 유적에서는 사이다병 1병이 지표에서 채집되었다(上田市教育委員會 2010). 사이다병은 무색투명하지만, 온전한 형태가 아니라 하부만 남아있다.

3) 나카마치 유적

이 유적은 미야자키현(宮崎県) 미야코노조시(都城市)에 위치한다. 쓰레기 구덩이에서 사이다병 1병, 맥주병 2병, 와인병 1병이 출토되었다(宮崎県都城市教育委員會 2017).

사이다병은 반투명한 녹색을 띠고, 구연부 일부가 훼손되어 있다. 맥주병은 반투명한 갈색을 띠고, 길이는 29.5cm이다. 와인병은 반투명한 갈색을 띠고, 길이는 28.8cm이다(그림 4).



[그림 4] 나카마치 유적 출토 음료 유리병(宮崎県都城市教育委員會 2017 수정후 전제)

4) 호소야지 유적

이 유적은 이와테현(岩手県) 모리오카시(盛岡市)에 위치한다. 쓰레기 구덩이에서 사이다병 9병, 맥주병 15병이 출토되었다(盛岡市教育委員會 2021a, 2021b). 온전한 병도 존재하지만, 훼손되어 절반 이하만 남은 병이 다수이다.

사이다병은 투명하면서 옅은 담녹색인 것과 반투명한 녹색인 것, 무색투명한 것이 있다. 온전하게 남은 병을 기준으로 길이는 22.6cm인 것과 23.4cm인 것, 24cm인 것, 24.5cm인 것이 있다. 맥주병은 반투명한 갈색인 것과 불투명한 갈색인 것이 있고, 형태가 온전하게 남은 병을 기준으로 길이는 17.2cm인 것과 17.3cm인 것, 24.1cm인 것, 28.5cm인 것, 29cm인 것이 있다(그림 5).



[그림 5] 호소야지 유적 출토 음료 유리병(盛岡市教育委員會 2021a, 2021b 수정후 전제)

2. 용도 과학과 형식학적 배열

앞서 기호 음료가 확인된 일본의 유적은 음료의 소비 지역에서 소비 후 폐기된 쓰레기 구덩이, 즉 폐기 유적이다. 폐기 유적의 유리병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일본 출토 근대 음료 유리병

출토 유적	종류	색깔	높이	명문
가자카자와 하안 유적	사이다	녹색	파손	없음(미츠야 마크)
	사이다	녹색	파손	없음(미츠야 마크)
	사이다	녹색	파손	‘… 鉱泉株 …’ 등(미츠야 마크)
	사이다	녹색	파손	없음(미츠야 마크)
	사이다	반투명 녹색	23.7cm	‘別府礦泉株式會社’와 ‘登録商標’ 등
	사이다	반투명 녹색	23.7cm	‘東京石川日進舎’와 ‘花月’ 등
	사이다	반투명 녹색	24.4cm	‘日本麦酒礦泉株式會社’와 ‘登録商標’ (미츠야 마크)
	다이아몬드 레몬	반투명 갈색	27cm	‘ダイヤモンド印’와 ‘ヌノビキコーセーション’, ‘登録商標’ 등
	맥주	짙은 갈색	29.5cm	‘麒麟ビール’와 ‘登録商標’ 등
	맥주	짙은 갈색	파손	‘麒麟ビール’와 ‘登録商標’ 등
	맥주	짙은 갈색	파손	‘YOKOHAMA(麒麟) KIRIN BREWA …’ 등
	맥주	짙은 갈색	파손	없음
	맥주	짙은 갈색	29.2cm	‘麒麟ビール’와 ‘登録商標’ 등
	맥주	짙은 갈색	29.3cm	‘麒麟ビール’와 ‘登録商標’ 등
	맥주	짙은 갈색	파손	‘… KOTOBUKIYA BEER …’ 등
	맥주	짙은 갈색	파손	‘… KABU …’ 등
	맥주	짙은 갈색	파손	‘… KABUTO …’ 등
	맥주	짙은 갈색	파손	‘… ANGLO JA …’와 ‘… COMPA …’ 등
	맥주	짙은 갈색	파손	‘登録商標’ 등
	맥주	짙은 갈색	파손	‘TRADE MA …’ 등
	맥주	짙은 갈색	파손	‘大日本麦酒株式会社釀造’와 ‘登録商標’ 등
	맥주	짙은 갈색	파손	‘大日本麦酒株式会社釀造’와 ‘登録商標’ 등
	맥주	짙은 갈색	파손	없음
	맥주	짙은 갈색	파손	없음
	맥주	짙은 갈색	파손	‘DAINIPPON BREWERY CO LTD’ 등
	맥주?	녹색	파손	없음

출토 유적	종류	색깔	높이	명문
가지카자와 하안 유적	와인	반투명 녹색	25cm	없음
	와인	갈색	28.8cm	'AKADAMA PORT WINE' 등
우에다 성터 유적	사이다	무색투명	파손	'金線サイダー' 등
나카마치 유적	사이다	반투명 녹색	파손	'大日本麦酒株式会社製造'와 '登録商標' 등
	맥주	반투명 갈색	파손	'登録商標'와 'KB' 등
	맥주	반투명 갈색	29.5cm	'KABUTO BEER' 등
	맥주	반투명 갈색	29.5cm	'キリンビール'와 'KIRIN BREWERY CO' 등
	와인	반투명 갈색	28.8cm	'KOZAN WINE BEE BRAND'와 'R. KONDO & CO', 'TOKYO' 등
호소야지 유적	사이다	투명 담녹색	22.6cm	'KINSEN'과 '金線飲料株式會社製造' 등
	사이다	투명 담녹색	파손	'BNK'와 '大日本麦酒株式會社製造' 등(별마크)
	사이다	반투명 녹색	파손	'金線 ...' 등
	사이다	투명 담녹색	23.4cm	'大日本麦酒株式會社製造' 등(별마크)
	사이다	무색투명	24cm	'KIRIN BREWERY CO LTD'와 'KB' 등
	사이다	투명 담녹색	22.2cm	'KINSEN'과 '日本麦酒鑛泉株式會社' 등
	사이다	반투명 녹색	24.5cm	'日本麦酒鑛泉株式會社'와 '登録商標' 등(미츠야 마크)
	사이다	투명 담녹색	23.4cm	'日本麦酒鑛泉株式會社'와 '登録商標' 등(미츠야 마크)
	사이다	투명 담녹색	23.4cm	'ASAHI BREWERIES LTD' 등(미츠야 마크, 해방이후의 형태)
	맥주	반투명 갈색	파손	'サクラビール'와 'SAKURA B ...' 등
	맥주	반투명 갈색	파손	'NIPPON BEER KO ...' 등
	맥주	반투명 갈색	파손	'Ball' 등
	맥주	반투명 갈색	파손	'Duraglas' 등
	맥주	반투명 갈색	17.2cm	'NO DEPOSIT NO RETURN'과 'NOT TO BE REFILLED' 등
	맥주	반투명 갈색	17.2cm	'NO DEPOSIT NO RETURN'과 'NOT TO BE REFILLED' 등
	맥주	반투명 갈색	17.2cm	'NO DEPOSIT NO RETURN'과 'NOT TO BE REFILLED', 'Duraglas' 등
	맥주	반투명 갈색	17.2cm	'NO DEPOSIT NO RETURN'과 'NOT TO BE REFILLED', 'Duraglas' 등
	맥주	반투명 갈색	17.3cm	'NO DEPOSIT NO RETURN'과 'NOT TO BE REFILLED' 등
	맥주	반투명 갈색	파손	'DB'와 'TRADE MARK', 'DAINIPPON BREWERY CO LTD' 등
	맥주	반투명 갈색	28.5cm	'DB'와 'TRADE MARK', 'DAINIPPON BREWERY CO LTD' 등
	맥주	반투명 갈색	파손	'キリンビール'와 '登録商標', 'KB' 등
	맥주	불투명 갈색	파손	없음
	맥주	반투명 갈색	29cm	'DB'와 'TRADE MARK', 'DAINIPPON BREWERY CO LTD' 등
	맥주	반투명 갈색	24.1cm	'タカラビール'와 'TAKARA BEER' 등

[표 2]에서 주목할 점은 유리병과 내용물의 관계이다. 근대 일본과 미국에는 특정 목적에서 맞추어 제작된 유리병이 다수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음료 유리병의 사례가 있다.

당시 음료 유리병에는 종이로 된 라벨이 존재하였지만, 발굴조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종이 라벨이 부식되어 사라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대체할 정보의 출처가 유리병에 새겨진 명문이고, 유리병에는 'DAINIPPON BREWERY CO LTD'나 '日本麦酒醸泉株式會社'처럼 특정 회사의 정보가 새겨져 있으며, 이를 통해 대략적인 용도를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알코올이 함유된 맥주는 갈색 계열의 유리병을 사용하지만, 알코올이 함유되지 않은 음료는 갈색 계열의 유리병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보편적 규칙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규칙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것을 토대로 보고된 음료 유리병과 그 용도를 살펴보면 음료 유리병과 내용물이 일치하게 된다. 일본의 발굴조사 보고서에서도 같은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유리병의 형태와 명문을 통해 내용물의 파악이 가능하다. 이러한 전제하에 음료 유리병의 이동이 특정 음료의 이동과 같은 의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0.1~0.2cm의 차이는 실측할 때마다 발생한 오차로 이해할 수 있다. 가령 호소야지 유적에서는 규격이 17.2cm인 맥주병과 17.3cm인 맥주병이 출토되었다. 실제로는 한 번에 조사와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발생한 실측 과정에서의 오차이거나, 혹은 생산 과정에서의 작은 불량으로 판단하며, 0.1cm 정도의 차이는 같은 용도의 유리병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격적인 재분류에 앞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몇 가지 있다. 첫째, 높이 17.2cm (17.3cm 포함)의 음료 유리병은 미국의 오웬-일리노이스(Owens-Illinois)사에서 1940년대에 제작한 맥주병이므로, 일본 맥주와의 비교에서 분리해야 한다. 바닥에 새겨진 '듀라글라스(Duraglas)'는 오웬-일리노이스사에서 개발한 특정 유리병의 상표명(trade name)이다. 즉, 듀라글라스 자체가 미국산임을 반영한다. 듀라글라스 상표를 사용하는 갈색 유리병은 미국과 유럽에서 맥주의 전용 유리병으로 사용되었고, 1940년대의 규격이 17.2cm 전후였다.

둘째, 1944년 일본이 과세를 위해 '대병(大瓶)'의 용량을 633ml로 통일하고, '소병(小瓶)'의 용량을 334ml로 새롭게 규정하였다. 1957년에는 다카라주조(寶酒造)가 '중병(中瓶)'을 만들었다. 1944년 이전까지는 기업마다 사용하는 음료 유리병의 규격이 존재하였지만, 맥주는 대체로 대병 용량의 규격과 비슷하였다. 즉, 일본의 패망

직전(1944년 기준)의 자료를 비교할 때, 맥주의 소병과 중병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지카자와 하안 유적 출토 맥주 중에는 파손되어 일부만 출토된 맥주병이 있는데, 이 병은 보고자도 ‘물음표’로 의문을 제기하였으므로, 근거가 불확실한 자료를 분석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731부대 유적 출토 자료를 포함하여 음료 유리병을 특징에 따라 구분하면 [표 3] 및 [표 4]와 같다. 사이다병과 술병은 모두 크기가 25cm 미만이고, 색깔은 무색계열이거나 녹색계열이다. 반면, 맥주병의 색깔은 모두 갈색계열이고, 일본의 맥주병 크기는 25cm 이상이며, 미국의 맥주병 크기는 25cm 미만이다. 실제로 미국 맥주병의 경우, 17.2cm를 전후한 크기만이 출토되었다.

[표 3] 규격에 따른 구분

	25cm 미만	25cm 이상
일본 맥주병		○
미국 맥주병	○	
술병	○	
사이다병	○	
다이아몬드 레몬병		○
와인병		○

[표 4] 색깔에 따른 구분

	무색 계열	녹색 계열	갈색 계열
일본 맥주병			○
미국 맥주병			○
술병	○	○	
사이다병	○	○	
다이아몬드 레몬병			○
와인병		○	○

일본의 패망 직전인 1944년까지만을 상기의 기준으로 정리하면, 사이다와 맥주 등의 유리병을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사이다병은 25cm 미만의 녹색 및 무색계열 유리병이고, 일본의 맥주병은 25cm 이상의 갈색계열 유리병이며, 미국의 맥주병은 17.2cm 전후의 갈색계열 유리병이다. 다이아몬드 레몬병은 25cm 이상의 갈색계열 유리병이므로, 일본 맥주병과 구분하기 위해서는 명문을 참고해야 한다. 와인병은 대체로 25cm 이상이고 갈색계열 유리병이다.

이를 바탕으로 731부대 유적 폐기구덩이 5호에서 출토된 ‘술병’이 어떠한 음료인지 파악할 수 있다. 유리병은 무색이면서 투명한 것과 약간 녹색을 띠면서 투명한 것이 있고, 크기는 23.4cm이며 제조 회사에 대한 명문이 새겨져 있다. 이러한 특징은 근대 일본에서 생산된 사이다병의 특징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731부대 유적 출토 술병은 일본에서 생산된 사이다병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같은 폐기구덩이 5호에서 출토된 맥주병 역시 재분류할 수 있다. 유리병을 살펴보면, 형태와 색깔은 다른 맥주병과 일치하지만 ‘HONEY PORT WINE’이라는 명문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병과 가지카자와 하안 유적 출토 와인병의 크기와 색깔이 일치한다. 가지카자와 하안 유적 출토 와인병에는 ‘AKADAMA PORT WINE’으로 새겨져 있고, 이 때문에 근대 일본에서 생산된 와인으로 분류되고 있다. 같은 맥락으로 폐기구덩이 5호 출토 맥주병 중 ‘HONEY PORT WINE’라고 새겨져 있는 것은 맥주병이 아니라 근대 일본에서 생산된 와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덧붙여, 가지카자와 하안 유적에서 보고자가 ‘맥주병?’으로 보고한 병은 필자의 분류를 참고할 때, 사이다병임을 알 수 있다. 해당 병은 색깔이 맥주와 달리 녹색이다. 극히 일부만 파손되었기 때문에 원래의 규격과 몇 mm 정도로 극히 적은 수치의 차이만 날 가능성이 높다. 이 병은 잔존 높이가 약 23.5cm이고, 그렇다면 맥주가 아니라 사이다라고 인식해야 한다. 즉, ‘맥주병?’으로 보고된 것을 형식학적 배열을 통해 ‘사이다’로 재분류하였다.

3. 편년

일본은 1944년에 과세를 위하여 주류 유리병 규격을 변경하였다. 이 때문에 731부대 유적에서 출토된 유리병은 대체로 1930~1940년대에 일본에서 생산된 유리병과 같은 형태이며, 1944년 이후에 생산된 유리병의 규격은 극히 일부라고 판단한다.

실제로 비슷한 시기의 유적인 가지카자와 하안 유적과 나카마치 유적, 호소야지 유적 등지에서 731부대 유적 출토 유리병과 같은 형태의 유리병이 다수 확인되었다. 특히, 호소야지 유적 발굴 보고자는 출토된 맥주 유리병 중 색깔이 반투명한 갈색을 띠면서 높이가 29cm인 것을 1906년부터 1949년 사이에 생산된 형태로 추정하였으며, 색깔이 반투명하면서 갈색을 띠고 높이가 28.5cm인 것은 1920년대 중반부터 1949년까지 생산된 형태로 추정하였다(盛岡市教育委員會 2021a, 2021b).

이외 사쿠라 맥주를 참고할 수 있다. 사쿠라 맥주는 1943년 11월에 대일본맥주에 소속되면서 상표 자체가 바뀌게 된다. 이 때문에 731부대 유적에서 출토된 사쿠라 맥주는 1943년 12월 이전에 생산된 것이다.

당시에 이미 선박과 기차 등 근대적인 운송수단이 사용된 시점이고, 음료 유리병의 성격 자체가 정기적이며 빠른 이동이 필요한 군수품이므로, 경사편년은 거의 무의미하다. 일본 내에서 하얼빈 731부대 세균실험실까지의 이동 시간은 최대한으로 설정하여도 1년을 넘지 못하고, 대체로 몇 개월 이내로 추측한다. 이러한 맥락으로 사쿠라 맥주의 731부대 유입 시점을 고려하면 1940년부터 1944년 초까지로 한정된다.

부대의 존속 시점으로도 상한연대와 하한연대를 파악할 수 있다. 상한연대는 1940년이다. 관동군 방역급수부 본부(關東軍防疫給水部本部)가 하얼빈시에 건설된 것은 1940년이므로 이 시점 이후가 되어서야 731부대로 보급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한연대는 1945년이다. 1945년 8월 14일 일본은 연합국에 항복을 전달하였고, 다음날 대중에게 항복을 발표하였다. 731부대는 이 시기에 하얼빈에서 철수하였고, 이후 유적 자체가 폐기된다. 그러므로 세균실험실과 특수감육의 하한연대를 1945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731부대 유적 출토 음료 유리병의 연대는 1940년부터 1945년까지이다. 필자의 이전 연구에 의하면, 731부대가 일본으로 귀환할 당시 실험에 사용한 건물의 의도적인 폐기 시도가 있었다(김동일 2022). 현재는 폐기 시점까지 남은 것만 발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731부대 활동 당시에는 훨씬 더 많은 수량의 음료가 존재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이다와 맥주 등은 731부대가 등장한 이후, 단발적으로 유입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출토된 음료 유리병의 연대를 1940년부터 1945년 사이의 특정 시점에 한정할 수 없고, 이 시기 전체를 유적의 연대로 판단해야 한다.

Ⅳ. 생산과 이동 과정

1. 생산 배경 검토

1) 사이다와 맥주의 등장

국내의 일반인에게는 생소하겠지만, 일본의 사이다 연구자에게는 사이다가 본래 중세 유럽의 사과 음료를 지칭한 것이었고, ‘알코올이 들어간 음료도 있다’라는 것이 보편적인 지식이다. 지금도 유럽에서 ‘cider’은 알코올이 함유된 사과술을 지칭하고, 원재료로 인해 갈색을 띠는 경우가 많다. 간혹 무알코올인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다.

탄산이 들어간 ‘cider’은 근대에 일본으로 유입된다. 1853년 미국의 동인도 함대 사령관이자 일본 특파 대사였던 페리(Matthew Calbraith Perry) 제독이 처음으로 일본에 들여놓았다는 설도 있지만 확인이 어렵다. 1860년대 영국 선원들에 의한 cider의 반입은 비교적 명확하다. 나가사키에서는 이 시기부터 외국인들에 의해 ‘cider’이 자체적으로 제작되기 시작한다.

1875년 cider을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팔고 있던 영국인 소유의 약품상에는 니시 무라 진사쿠(西村甚作)라는 일본인 직원이 있었다. 그는 cider과 관련하여 아키토모 미노스케(秋元巳之助)에게 여러 조언을 하였고, 이후 아키토모 미노스케에 의해 ‘히노데츠루(日の出鶴)’가 완성되며 이것이 한국과 일본에서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사이다의 시초이다.

히노데츠루는 1899년에 ‘금선사이다(金線サイダー)’로 개칭하면서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가타가나로 만들어진 ‘サイダー(사이다)’라는 용어가 제시된다. 이때, 현재 사이다의 병뚜껑과 같은 형태가 사용되기 시작하고, 일본에서는 이것을 ‘왕관(王冠)’ 병뚜껑이라고 지칭하였다.²⁾ 반면, 뚜껑의 구조를 달리하여 내부에 구슬이 들어간 병은 ‘라무네(ラムネ)’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사이다와 라무네는 병의 형태에 따라 다른 음료가 되었다.

어찌 되었든 1900년대 초반부터는 ‘미츠야 사이다(三ツ矢サイダー)’ 등 다양한 사이다가 제작 및 유통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사이다는 더 이상 사과와 관련이 없고 레몬이 첨가되었으며, 알코올이 아닌 탄산수만을 사용하여 현재 대중이 알고 있는 무색의 탄산음료가 되었다. 또한, 탄산은 천연 탄산수(鑛泉水)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サイダー’는 ‘cider’의 일본식 영어 발음(Japlish)이다. 즉, 한국에서 유통되는 사이다는 영미권의 ‘cider’이 아니고, 일본의 ‘サイダー’이다.

맥주는 사이다에 비해 훨씬 일찍부터 지구상에 등장한다. 맥주의 기원에 대해서는

2) 왕관 병뚜껑은 1892년 미국의 윌리엄 페인터(William Painter)와 그의 아내(Harriet Deacon Painter)가 제작한 것으로, 정식 명칭은 ‘Crown cap’이다.

고대 이집트설이나 이란설 등 몇몇 가설이 있으며, 대체로 기원전에 등장한 것으로 인식된다. 이후 맥주는 유럽으로 퍼져 나가고, 홉(hop)을 첨가하는 등 발전을 거듭하다가 19세기가 되면 현대적인 맥주에 가까워지게 된다.

일본 내 맥주의 등장에 대해 살펴보면, 일본은 19세기 이전부터 맥주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일본 내 최초의 공장이 1876년 9월 삿포로 시내에 설립되었다는 주장을 참고할 때(立石勝規 2009: 114), 실제로 일본 내에서 제작되기 시작한 시점은 19세기 후반부터이다.

근대 일본의 맥주는 카와모토 코우민(川本幸民)에 의해 제작이 시도된 이후, 미국인 윌리엄 코플랜드(William Copeland)와 독일계 미국인 에밀 비간토(Emil Wiegand)에 의해 일본의 맥주 회사가 처음으로 설립되었다. 그 뒤를 이어 다양한 맥주 회사가 생겨나면서 근대 일본에 맥주가 자리잡게 된다.

어찌 되었든 20세기로 넘어가기 전까지 일본 내 양상을 살펴보면, 외국인에 의해 맥주 회사들이 설립되다가 점차 일본인의 주도로 맥주 회사가 설립되어 다양한 맥주 회사가 등장하게 된다.

2) 사이다와 맥주의 생산 배경 검토

근대 일본의 사이다와 맥주 생산에 있어서 주목할 곳은 대일본맥주주식회사(大日本麦酒株式会社)이다. 이 회사는 맥주 회사로 표기되어 있지만, 맥주뿐만 아니라 사이다까지 생산하였다. 현재 국내에서도 유명한 아사히 맥주(アサヒビール, ASAHI)와 삿포로 맥주(サッポロビール, SAPPORO), 에비스 맥주(エビスビール, YEBISU) 등이 대일본맥주주식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되다가 독립하였거나, 혹은 자체적으로 출범하였지만 이후 대일본맥주주식회사에 소속되었다가 다시 독립하여 출범한 맥주 상표들이다.

이외 사쿠라 맥주(サクラビール)가 대일본맥주주식회사에 합병되었다. 731부대 유적에서 출토된 유리병에 ‘SAKURA BEER’라고 새겨진 글자는 일본의 사쿠라 맥주를 의미한다. 즉, 731부대 유적에서 출토된 대부분의 사이다와 맥주는 대일본맥주주식회사와 연관되어 있다. 이 때문에 대일본맥주주식회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일본맥주주식회사의 배경에는 네즈 가이치로(根津 嘉一郎)가 있다. 네즈 가이치로가 경영하던 가부등맥주주식회사(加富登麥酒株式會社)는 1921년에 제국광천주식회사(帝國鑛泉株式會社)와 합병이 이루어진다(矢倉伸太郎·生島芳郎 1986: 86).

타테이시 카츠노리에 의하면, 네즈 카이치로가 제국광천주식회사를 합병한 이유가 미츠야(三ツ矢) 사이다를 손에 넣기 위해서였다(立石勝規 2009: 121).

네즈 가이치로는 두 회사가 합쳐져서 탄생한 일본맥주광천주식회사(日本麥酒鑛泉株式會社)의 사장이 되고, 19세기부터 생산하였던 미츠야 사이다를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타테이시 카츠노리에 의하면, 1926년에 청량음료세가 생기면서 고급품이었던 사이다는 일본군의 함대로 판매되어 중국 등지로 이동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立石勝規 2009: 136~137). 또한, 사이다의 제작자와 도매점, 소매점의 이익은 약 60%이지만, 제작지에서 일본군으로 바로 납품되면 이익이 제로에 가깝다고 하였다(立石勝規 2009: 137). 정황을 종합하면, 미츠야 사이다는 이익을 거의 남기지 않고 일본군에 납품되었고, 늦어도 1920년대에는 중국까지 이동하게 된다.

1933년에는 일본맥주광천주식회사가 대일본맥주주식회사에 합병되면서 사이다 등의 일본군 납품은 대일본맥주주식회사가 이어간다. 이때, 네즈 가이치로는 대일본맥주주식회사를 떠나게 된다. 그러나 1934년 7월 29일에 네즈 가문의 후계자였던 네즈 케이키치(根津 啓吉)가 대일본맥주주식회사의 감사(이사)로 임명되면서(濱田徳太朗 1936), 네즈 가문의 영향력이 계속 이어진다. 즉, 네즈 가이치로가 떠나면서 네즈 가문이 대일본맥주주식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거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네즈 가문의 영향력을 거두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네즈 케이키치는 네즈 가이치로의 형인 네즈 카즈히데(根津 一秀)의 장녀와 1903년 결혼하여 데릴사위가 되었고, 1905년에 네즈 가문에서 가장의 권리를 획득하였다(名古屋大學大學院法學研究科 2025년 4월 12일 접속). 실제로 네즈 케이키치는 1932년부터 1935년까지 네즈 가이치로의 저택(現 네즈미술관)을 정비하기도 하였다(山梨市 2025년 4월 12일 접속). 어찌 되었든 네즈 케이키치가 대일본맥주주식회사의 이사로 임명되면서 군수품인 사이다와 맥주의 생산에 네즈 가문이 계속 관여하였다. 무엇보다 대일본맥주주식회사는 전쟁 특수를 통한 이득을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일본군이 선호한 두 종의 음료를 납품하였다.

타테이시 카츠노리는 일제 국가 총동원령이 이루어지던 1938년 5월 당시 일본 육군 군매점 최고 책임자인 마루키 쇼조(丸木彰造)의 발언을 설명하였다. 그 내용은 청량음료가 일본의 육군에서는 ‘군수품’이었고, 중국 내 일본인의 일상생활 및 전쟁의 사기 진작의 목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立石勝規 2009: 138).

이것을 정리하면, 1920~1930년대에 이미 사이다는 중요 군수품이었고, 특히 중국에서 활동하는 군인을 위한 군수품으로 보급되었다. 사이다의 원가에 가까운 납품은 대일본맥주주식회사가 담당하였고, 미츠야 사이다는 일제 국가 총동원령과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이후에도 1940년대 초반까지 최대 생산량 달성을 계속 갱신한다. 이것은 군수품 납품을 통해 네즈 가문과 대일본맥주주식회사가 전쟁 특수를 누렸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재차 강조하자면, 본래 1920년대 마츠야 사이다와 맥주는 네즈 가이치로가 생산 및 군납을 담당하였고, 1933년부터는 네즈 가이치로를 대신하여 가문의 후계자 네즈 케이키치가 생산과 납품에 관여되었다.

2. 이동 과정 추적

1) 도착 지점 출토품으로 본 출발 지점

앞서 설명하였듯이, 중국 하얼빈의 731부대 유적 출토 사이다와 맥주는 일본산이다. 그 근거는 병의 명문이다. 가령 세균실험실 3동과 폐기구덩이 5호 출토 맥주병에서는 병 상부에 'TRADE MARK'라는 글자가 있고, 병 하부에 'DAINIPPON BREWERY CO LTD'라는 글자가 있으며, 병 저부에 별마크와 숫자가 있다. 이러한 형태는 일본의 가지카자와 하안유적과 호소야지 유적 등에서 같은 형태가 발견되었다.

일본군이 중국의 산둥지역 일부를 점령한 후, 칭다오(靑島)맥주 공장은 1916년에 대일본맥주의 외국식 표기 방식에 따라 'DAINIPPON BREWERY'의 공장으로 변경되었고, 이후 'DAINIPPON BREWERY CO LTD'로 표기된 맥주는 칭다오에서 731부대로 자체 조달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심복도(SFZ)에서 출토 맥주병에서는 병 상부에 벚꽃문양과 '登録商標'라는 글자가 있고, 병 하부에 'SAKURA BEER'와 'サクラビール'라는 글자가 있으며, 병 저부에 알파벳과 숫자가 있다. 이러한 형태는 일본의 호소야지 유적에서 같은 형태를 찾을 수 있다. 호소야지 유적 출토품은 하부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단의 형태는 알 수 없지만, 하부와 글자가 일치하고 저부의 글자가 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일본산임을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사쿠라 맥주가 일본 규슈(九州)에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 규슈에서 중국 하얼빈까지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폐기구덩이 5호 출토 사이다병에서는 병 상부에 'BNK'라는 글자가 있고, 병 하부에 '日本麥酒鉦泉株式会社製造'라는 글자가 있다. 이러한 형태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가지카자와 하안유적과 호소야지 유적 등에서도 출토되었다. 일본맥주광천 주식회사가 1933년에 대일본맥주에 합병되기 전까지 일본에서 사이다를 자체적으로 생산하였기 때문에, 이 유리병 역시 일본산임을 알 수 있다.

폐기구덩이 5호 출토 맥주병에는 'キリンビール'와 '登録商標'라는 글자가 병 상부와 병 하부에 표기되어 있고, 'KB'를 겹쳐서 만든 마크를 '登録商標' 사이에 새겨놓았다. 이 병은 기린 맥주병으로 일본에서 매우 흔하게 확인된다. 실제로는 가지카자와 하안유적과 호소야지 유적, 나카마치 유적 등에서 같은 형태의 맥주병이 확인된다. 이를 고려할 때, 일본에서 생산된 기린 맥주가 731부대로 이동하였다고 판단한다.

폐기구덩이 5호 출토 와인병에는 병 상부에 'HONEY PORT WINE'라고 적혀 있고, 병 하부 윗줄에 'NIPPON HACHIMITSU'라는 글자와 아랫줄에 'JOZO CO'라는 글자가 적혀 있다. 적혀 있는 문구로 보아 벌꿀주의 병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PORT WINE'은 포르투갈 와인을 지칭하는 용어이고, 1970년대부터 포르투갈 이외 국가에서 생산된 와인을 포트와인이라 부를 수 없게 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JOZO'이다. 일본어로 '釀造(양조)'를 영어식으로 표기하면 'JOZO'가 된다. 또한, 'HACHIMITSU'는 일본어로 '蜂蜜(봉밀)'을 영어식으로 표기한 것이고, 해석하면 벌꿀이 된다. 이를 종합하면, NIPPON HACHIMITSU JOZO CO는 일본 봉밀(蜂蜜) 양조(釀造) 회사가 된다. 이 일본의 회사가 PORT WINE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제재가 생기기 이전에 만든 벌꿀 와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이 와인은 일본에서 생산된 와인이다.

무엇보다 사이다는 일본에서 생산된 것으로 한반도 등 일본 내지가 아닌 곳에서 생산될 때 상표가 다르게 제작되었다. 이 때문에 사이다 자체가 일본에서 생산된 후 중국 하얼빈으로 이동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상기 자료를 참고할 때, 731부대 유적에서 출토된 맥주병과 사이다병, 와인병은 731부대가 활동할 당시에 일본 현지에서부터 731부대까지 조달된 음료로 이해할 수 있다. 일부는 중국 경내에서 자체적으로 조달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다수가 일본에서 생산되는 음료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중국 하얼빈의 731부대로 유입되었다고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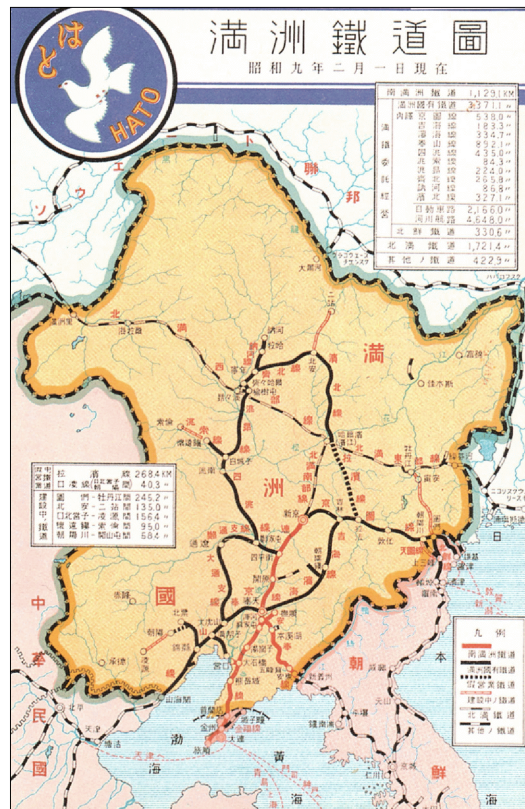
2) 군수품 이동 방법1 : 해로의 이용

당시 일본에서 한반도 및 중국으로 건너오기 위해서는 선박이나 비행기를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비행기로 이동하기에는 1942년까지의 정기 항공노선에서 하얼빈이 존재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당시 전쟁 상황 및 기술 수준의 부족으로 인해 비행기로 대량의 물자를 정기적으로 보급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부터 물자가 건너오기 위해서는 주로 선박을 이용하는 방식이 사용될 수밖에 없다.

1933년의 항로도를 참고하면 야마구치현(山口県) 시모노세키(下関)에서 부산과 청진, 나선으로 선박의 운행이 이루어졌다. 1934년에 발행된 만주철도 지도를 참고하면, 함경북도 동북 끝의 나선과 청진에는 일본에서 오는 선박을 위해 항구가 존재하였다(그림 6).

731부대 건물이 완공되기 직전 해인 1939년에는 이미 일본의 시모노세키뿐만 아니라, 하카타와 히로시마, 도야마, 니가타 등지에서도 한반도로 선박이 운행하였다. 그중 부산으로는 시모노세키와 하기, 하카타 간의 항행이 존재하였고, 일본 내 다른 지역에서는 근해를 통과하여 시모노세키 등지로 집결 후 다시 부산으로 이동하였다. 청진으로는 니가타와 시모노세키 등지 간에 항행이 존재하였다. 즉, 1939년까지 부산으로의 항행이 다수 존재하였다.

1944년의 상황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1944년에는 일본의 선박 피해가 증가한 시점이다. 이때 필리핀 방어를 위해 부산 및 남해안의 선박이 급감하였다는 견해가 있다(임채성 2015: 175). 그렇다면 1944년부터 일본이 패망한 1945년까지는 선박의 활용보다 기차의 활용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 1944년부터는 거리가 가깝고 활용도가 높은 부산으로



[그림 6] 1934년 철도 현황(高木宏之 2010 수정 후 전제)

군수품이 이동한 후, 나선과 청진 등을 거쳐 하얼빈의 731부대까지 군수품이 보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즉, 1944년과 1945년에는 선박의 부족으로 인해 노선이 짧은 부산을 주로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종합하면, 세균실험실이 건설되기 이전부터 일본에서는 주로 부산항을 이용하였고, 이후에도 여러 사정상 부산항을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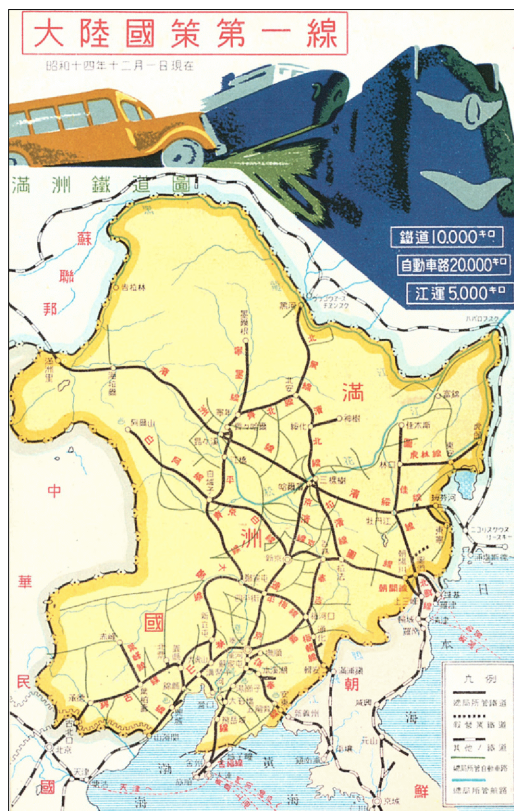
3) 군수품 이동 방법2 : 철도의 이용

이어 실제로 부산에서 하얼빈까지의 군수품 보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앞의 음료 유리병 자료를 참고할 때 분명 일본에서 하얼빈까지 군수품이 이동한 것이 명백하며, 직접적으로는 731부대 유적의 사례가 있다.

당시 일본에서 한반도로 이동한 물자 중 다수가 부산에서 서울(당시 경성)로 이어지는 철도를 이용하였다. 서울에서는 다시 서북한으로 연결되는 철도와 동북한으로 연결되는 철도로 나뉘어진다(그림 7). 이 철도들을 제외하면 대량의 물자가 하얼빈까지 정기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편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산에서 하얼빈의 731부대까지 기차를 이용하여 군수품 보급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관련하여 정재정의 견해를 참고하면, 그는 한반도의 조선 철도망을 이용하여 중국 동북지역까지 군사수송이 이루어졌고, 그 안에는 일본에서 이동한 인력과 군마, 군수품 등이 포함된다고 지적하였다(정재정 2022: 456~457).

한편, 남만주철도는 1940년부터 관동군과 만주국의 감시하에 계획수송을 실시하였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임채성은 당시 조선과 일본에



[그림 7] 1939년 철도 현황(高木宏之 2010 수정 후 전제)

비해 훨씬 이른 시점부터 군이 직접적으로 개입 및 통제하였을 지적하였다(임채성 2015: 159). 임채성의 견해가 맞건 틀리건 간에 늦어도 1940년에는 관동군과 만주국에 의해 남만주철도의 운용이 통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일본군의 군수 보급품은 한반도에서 남조선철도를 이용하고, 중국 동북지역에서 남만주철도를 이용하여 보급이 이루어졌다.

3. 731부대로의 군수품 보급 최종 과정

앞의 연구를 통해 일본군의 군수 보급품은 기차를 이용하여 보급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731부대로의 군수품 보급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 동북지역에서 하얼빈으로 통하는 철도는 ‘중동철도(中東鐵路)’라 하여 소련이 20세기 초에 건설한 철도였다. 만주사변 이후, 소련은 일본의 영향이 강하였던 동북지역에서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1935년에 중동철도를 만주국에 넘겼다. 즉, 1935년부터 하얼빈으로 연결된 철도는 일본의 소유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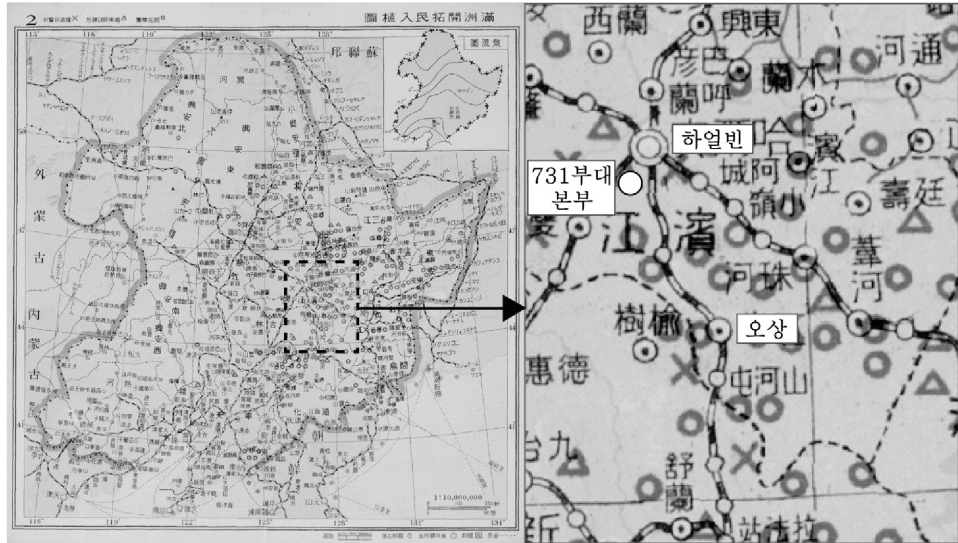
상세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731부대 인근의 철도 상황을 집중하고자 한다. 1933년 하얼빈시 남쪽에 오상(五常)역이 건설되면서 1932년까지와는 다른 루트의 철도가 건설된다. 이 철도는 731부대와 비교적 인접하며, 한반도와 연결되는 주요 철도 중 하나로도 활용된다. 그러나 여전히 철도와 731부대는 직선거리로 4km 가까이 떨어진 상태였다(그림 8). 1934년 731부대와 4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평방(平房)역이 건설된다. 물론, 더 인접한 곳에 여명(黎明)역이 존재하지만 여명역은 1984년에 건설되었기에 731부대와 관계가 없다.

이 문제는 전 731부대 부대원이었던 이시바시 나오카타(石橋 直方)가 1986년에 작성한 세균실험실과 특수감옥 일대의 약도를 참고할 수 있다(그림 9). 그가 작성한 약도에는 세균실험실 옆으로 이동하는 철도가 존재하고, 철도에서부터 이어진 이동 경로도 묘사되어 있다. 또한, 본부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세균실험실 입구로 직접 이동하는 트럭도 묘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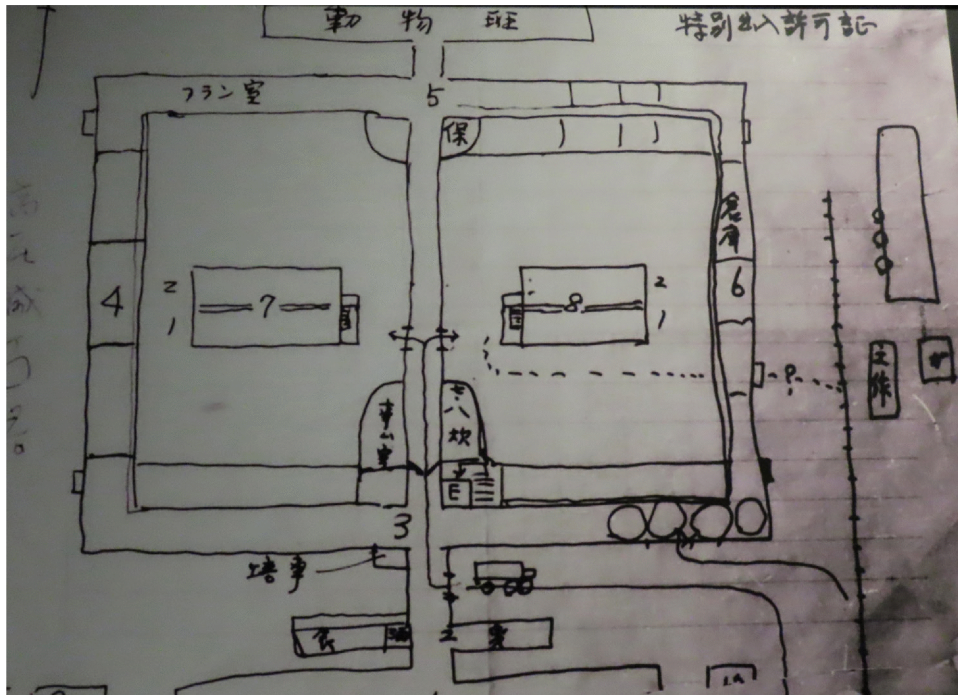
철도는 침화 일본군 제731부대 최종 전시관에서 제작한 모형에서도 잘 드러나며(그림 10: 좌), 현재까지 철도가 일부 보존되어 있으므로 이것 역시 참고할 수 있다(그림 10: 우). 이로 보아, 남만주철도가 731부대 세균실험실까지 직접 이동하여 군

수품을 제공하였다고 판단한다.

필자가 확인한 결과, 이 철도의 북쪽은 창고로 연결되고, 남쪽은 현재 일부 철도가



[그림 8] 1940년도 만주개척입식도(植野錄夫 1940 수정 후 전제)



[그림 9] 이시바시 나오키타가 1986년에 작성한 세균실험실과 특수감옥 일대 약도
(침화 일본군 제731부대 죄증 전시관 전시판넬 필자 촬영)



[그림 10] 731부대의 철도 현황

(좌: 세균실험실과 철도 배치 모식, 우: 실제 731부대 내 철도 ; 침화 일본군 제731부대 최종 전시관 필자 촬영)

끊겨있지만 평방역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철도는 1930년대 지도(그림 6·7 참조)뿐만 아니라 1940년대 지도(그림 8 참조)에서도 표기되지 않는다. 1942년 일본의 국제지학협회(國際地學協會)가 제작한 『滿洲帝國分省地圖並地名總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일본군이 숨겨놓은 철도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일본군은 선박을 이용하여 부산으로 군수품을 이동시켰고, 다시 기차를 이용하여 하얼빈까지 보급을 진행하였다. 다만, 731부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철도는 지도에 표기되지 못하였다. 철도가 731부대 바로 옆으로 연결되고, 그 뒤는 창고라는 점을 참고할 때 기차로 비밀리에 군수품 보급이 이루어졌음을 추측할 수 있다.

V. 근현대고고학의 역할과 전범 재인식

1. 전범의 재인식

국가 총동원령에서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국가 총동원령 상황에서 민간 기업은 군수품 납품을 거부할 입장이 아니었다고 반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앞서 설명한 내용과 연계하여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

731부대 군수품 납품은 일제의 국가 총동원령 상황에서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국

가 총동원령 전후에는 어떠하였는지, 또한 다른 전범 정황이나 증거는 없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 검토를 통해 국가 총동원령 상황에서의 전범 행위가 자발적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1) 일제 국가 총동원령 이전의 상황

일본은 1894년의 콜레라 대유행과 1894~1895년의 청일전쟁, 1904~1905년의 러일전쟁 등을 겪으면서 살균력이 강한 사이다를 군수품으로 주목하였다(Asahi 2024년 11월 13일 접속: 5). 러일전쟁이 끝나면서 미츠야 사이다 등의 탄산음료는 살균력 뿐만 아니라, 라무네에 비해 고급품이라는 인식까지 생겼다(秋山久美子 2006: 63). 이러한 인식은 일본의 패망 전까지 유지되었다.³⁾ 즉, 당시 사이다에 대한 인식은 고급 기호 음료이자, 살균력을 통한 안정된 수분 보급이 가능한 음료였다.

사이다에 대한 요구는 일본군으로 이어졌으며, 해군에서 먼저 선호되었지만, 육군으로도 납품이 이루어졌다. 야마구치 카즈오미에 의하면, 1920년대와 1930년대에 기호 음료의 군수품 납품에 대한 붐이 일었고, 1930년대 맥주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군수 산업이 더욱 호황을 이룬다(山口一臣 2010: 23).

이러한 상황에서 네즈 가이치로는 미츠야 사이다를 손에 넣기 위해 제국광천주식회사를 합병하였다. 그는 1920년대에 이미 군수품 생산으로 회사의 규모를 늘려가고 있었다. 그의 입장에서는 사이다가 군수품으로 납품되는 것이 당장 큰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회사의 규모를 키우는 것에는 기여가 가능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기호 음료의 군수품 납품이 자발적이면서, 동시에 전쟁에 의한 호황을 누리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군수품의 유통은 기차와 철도가 중점적으로 활용되었다. 이 철도와 관련된 정황을 살펴보면, 한반도와 중국 동북지역, 일본으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한반도에는 여러 철도회사가 존재하였다. 그중 1920년대에 설립된 남조선철도⁴⁾에 네즈 가이치로가 창립자로 합류하였고, 이 철도회사는 1936년에 조선총독부에 인수되었다.

대중과 국내 학계에는 알려지지 않은 사실도 존재한다. 부산에서 경성까지 연결되는 철도에서도 네즈 가이치로가 등장한다. 이 철도는 경부철도(京釜鐵道)라 불리었

3) 1940년 사이다의 가격은 18~22센이고, 라무네의 가격은 3~8센이다(東京清涼飲料協會編 1975: 566). 100센(錢)이 1엔(円)이다.

4) 동명의 회사가 존재하므로 인식에 주의가 필요하다.

고, 후에 이 철도 역시 조선총독부가 인수한다. 이 경부철도의 발기인에도 네즈 가이치로가 참여하였다(澁澤榮一傳記資料刊行會 1957: 368). 이 철도는 군수품 보급의 주요 경로로 사용되었다.

중국 동북지역에서도 네즈 가이치로의 이름이 등장한다. 네즈기념관 상설전시실의 설명에 의하면 그가 만주국의 철도에까지 관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總務課廣聽廣報擔當 2008: 2). 또한, 1934년 3월 1일에 만주국 건국공로 훈장(建國功勞章)을 수여받기도 하였다. 문제는 그가 중국 동북지역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 국내와 일본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본 내 그의 일대기나 인물 소개 자료 등에서는 한반도 및 중국 동북지역과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자료의 확보가 매우 어렵다.

필자는 남만주철도가 민간에서도 운영하였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남만주철도는 1917년부터 전 노선을 민간에서 운영하였지만, 수익이 충분하지 못하였기에 민간 기업은 곤란한 상황이었고, 결국 1925년에 남만주철도를 조선총독부로 환원한다.

네즈 가이치로는 민간 기업이 모두 힘들어하였던 1924년에 남만주철도의 새로운 노선으로 금북철도(金福鐵道)를 계획하였다(南滿洲鐵道株式會社庶務部調査課 1927: 548). 네즈 가이치로를 중심으로 여러 일본인이 자본을 합친 금북철도공사(金福鐵路公司)가 설립되었으며, 이 기업이 직접 철도를 경영하였다(南滿洲鐵道株式會社庶務部調査課 1927: 548). 이것은 조선총독부의 철도 사업에 힘을 실어준 행위이며, 일제강점기 한반도에서 중국 동북지역으로 이어지는 물자 운송에 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일본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다. 네즈 가이치로는 1905년에 동무철도(東武鐵道)의 사장이 되고, 이후 이 기업의 운영은 주로 네즈 가문의 후손들이 맡게 된다(東武鐵道株式會社 2025). 네즈 가이치로가 동무철도의 사장으로 재임하던 시기, 국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조선인 강제 동원의 정황이 존재한다.

1923년 9월 1일에 관동대지진이 발생한다. 당시 사이타마현(埼玉縣)에는 노다선(野田線)의 건설이 진행 중이었고, 해당 철도는 동무철도가 담당하였다. 다나카 마사타카에 의하면, 9월 4일 노다선 건설에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이 수용소로 이동할 때 자경단이 습격하여 조선인 57명을 학살하였다(田中正敬 2014: 24). 이 57명에 대한 학살은 『朝鮮人強制連行調査の記録 埼玉 中間報告』에서도 보고된 내용이다(埼玉縣朝鮮人強制連行真相調査團 1998). 여기서 주목할 점은 동무철도의 노다선 철도 건설에 강제 동원된 조선인이 존재하였지만, 관련 조선인이 학살당하면서 강제 동원에 대

한 당사자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이처럼 네즈 가이치로의 행적을 검토하면, 철도와 관련된 그의 전범 행위가 드러난다.

네즈 가이치로와 관련된 행적은 부국징병보험(富國徵兵保險)⁵⁾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1923년부터 부국징병보험의 사장이 된다(富國生命保險相互會社 1981: 462). 당시 한반도에는 조선생명징병보험 등이 더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부국징병보험은 학계나 언론으로부터 주목받지 못하여 왔다.

한반도에서는 1933년 1월 1일 경성부 황금정(현재 서울)에 부국징병보험의 경성지부가 정식으로 건설되어(富國生命保險相互會社 1981: 464), 당시 조선인들에 대한 보험 가입이 시작되었다. 이 부국징병보험은 야스쿠니 신사와 관련이 깊다.

야스쿠니 신사(靖國神社)는 일본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장소이다. 이 신사의 두 번째 도리이(鳥居) 좌우에는 대석등롱(大石燈籠)이 존재한다. 각 대석등롱 아래 8면에는 부조로 그림과 글이 새겨져 있다. 이 대석등롱은 1935년 12월 27일에 네즈 가이치로가 부국징병보험의 대표로 봉헌한 것이다(富國生命保險相互會社 1981: 466).⁶⁾

대석등롱의 부조에서는 일본군과 러일전쟁, 만주사변 장면 등이 묘사되어 있다. 또한, 부국징병보험 창립 10주년 기념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네즈 가이치로가 대석등롱을 봉헌한 것이라고 새겨져 있다.

대석등롱의 존재와 부조로 새겨진 그림과 글을 고려하면, 네즈 가이치로와 부국징병보험은 일본군이 중국을 침략하여 발생한 만주사변과 러일전쟁을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지지가 아니라 일본에서 상징적인 야스쿠니 신사에 해당 내용을 새겨서 봉헌한 것으로 보아, 전쟁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자로 보인다.

이외 조선공로자명감(朝鮮功勞者銘鑑)에서도 그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阿部 薰 1935). 조선공로자명감은 1910년부터 1935년까지 일제의 식민통치에 협력 및 공헌한 민간 공로자를 선정하고 그 명단을 정리한 책으로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책이다. 그는 식민통치에 대한 공로 이외에 러일전쟁과 일독전쟁의 훈장 수여자이기도 하다.

이상의 정황을 종합하면, 일제의 국가 총동원령 이전에 이미 네즈 가이치로와 그

5) 당시 일본에서 징병보험은 연금보험의 일종으로, 자녀가 어릴 때부터 보험에 가입하면 징집 시 보험금을 받는 종류였다. 그러나 한반도에서는 10대 중후반의 젊은 청년을 징병한 후, 사망하면 돈을 주는 종류로 목적 자체가 바뀌었다.

6) 대석등롱의 부조에 1935년 10월 22일로 새겨져 있기 때문에 10월 22일에 봉헌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부국징병보험의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봉헌된 날짜는 12월 27일이다(富國生命保險相互會社 1981: 466). 10월 22일은 부조를 제작할 당시 계획된 봉헌 날짜로 판단한다.

가 이끌던 기업들이 군수품 납품과 조선인 강제 동원 등 여러 행위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였고, 일본의 여러 전쟁에 적극적으로 지지 및 공헌하였다. 네즈 가이치로는 그 보답으로 여러 훈장을 수여 받았다.

2) 일제 국가 총동원령 당시 상황

일제의 국가 총동원령은 1938년 4월 1일에 공포하여, 1938년 5월 5일부터 시행된다. 이것은 일본에 국한되지 않고, 한반도와 중국 동북지역까지 그 영향이 확대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앞서 설명한 금복철도가 있으며, 이 금복철도는 1939년에 일본의 총독부에 인수되었다.

기호 음료를 군수품으로 납품한 대일본맥주주식회사는 일제의 국가 총동원령이 시행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장한다. 다른 기업과 달리 1940년대 초반까지 공장을 뺏기지도 않았다. 그 이유는 대일본맥주주식회사가 오랫동안 일본군에게 기호 음료를 군수품으로 납품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이익을 많이 남기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계속해서 수익을 내는 기업이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2차 세계대전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동아시아 침략을 통해서도 직접적인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일제의 국가 총동원령 시행 이후의 부국징병보험도 살펴보아야 한다. 1940년 1월 부국징병보험의 사장이었던 네즈 가이치로가 사망하면서(富國生命保險相互會社 1981: 470), 네즈 가문과 한반도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네즈 가이치로의 장남이었던 네즈 후지타로(根津 藤太郎)가 철도 사업뿐만 아니라 부국징병보험 등 다수의 사업을 승계한다(東武鐵道株式會社 2025: 21, 富國生命保險相互會社 1981: 470). 철도는 직접적으로 운영하였고, 부국징병보험은 가이치로 사망 한 달 뒤에 이사로 임명되어 가문의 사업을 이어간다. 심지어 후지타로는 아버지의 이름과 같은 가이치로(嘉一郎)로 개명까지 하면서 적극적으로 가문의 사업을 이어갔다.

부국징병보험은 2차 세계대전이 격화되어 갔던 1943년 1월에는 평양과 부산에 지부를 건설하였고, 두 달 뒤 일본이 이에 맞추어 병역법을 개정하여 조선인에 대한 징병을 실시하였다(富國生命保險相互會社 1981: 472). 같은 해 4월, 부국징병보험에서는 정식으로 조선인에 대한 징병보험을 개시한다(富國生命保險相互會社 1981: 472). 여기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징병보험을 정식으로 운영한 것일 뿐 앞서

설명하였듯이 부국징병보험의 여러 보험은 1933년에 경성지부가 설립되면 이미 조선인을 대상으로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富國生命保險相互會社 1981: 464).

한반도의 징병보험은 널리 알려져 있듯이, 강제적이었으며 보험금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이 사업 역시 네즈 가이치로가 일으켰으며, 일제의 국가 총동원령 이전부터 한반도에서 적극적으로 운영되었다. 그가 사망한 이후에는 그의 아들이 사업을 승계하여 이어갔기 때문에 네즈 가이치로를 중심으로 네즈 가문 자체가 전범 행위와 관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외 네즈 가이치로의 다른 행적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선임업개발주식회사(朝鮮林業開發株式會社)는 1937년에 설립된 후 일제의 국가 총동원령 시기에 적극적으로 활동한 기업이다. 네즈 가이치로는 이 기업의 설립위원이었다(根津翁傳記編纂會 1961: 486). 강정원의 주장을 참고하면, 이 기업은 조선인을 강제로 동원한 기업이다(강정원 2018).

또한, 일제의 국가 총동원령에 대응하기 위한 조선총독부 자문 회의 기구로 총독부 직속 기관인 시국대책조사회(時局對策調査會)가 존재하였으며, 이 기관은 총독의 자문을 맡아왔다. 네즈 가이치로는 이 기관의 위원이었다.

이상의 정황을 종합하면, 네즈 가이치로는 일제의 국가 총동원령 시기에도 전범 행위를 하였고, 그가 사망한 이후에는 그의 가문 사람들이 그의 사업을 이어갔다.

3) 일제 국가 총동원령 이후의 상황

1945년 8월 14일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고, 다음 날인 8월 15일에 종전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된다. 그러나 일제의 국가 총동원령 자체는 1946년 4월 1일에 완전히 폐지된다. 일본은 패망 이후 1952년 4월 28일까지 연합국 최고사령부에 의해 점령된 상태로 존재한다.

부국징병보험은 일본 패망 후에 부국생명보험으로 이름을 바꾼다. 1945년 9월, 일본에 연합국이 들어서면서 야스쿠니 신사는 유취관(遊就館)의 소유권을 빼앗긴다. 이때 부국생명보험이 연합국으로부터 소유권을 받아서 건물을 사용하다가, 1980년 야스쿠니 신사 창립 130주년 기념으로 전시관이 되면서 유취관을 야스쿠니 신사에 돌려준다(靖國神社 2025년 4월 19일 접속). 이것은 부국징병보험이 야스쿠니 신사를 비롯하여, 전범 행위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덧붙여, 1935년 부국징병보험 당시에 야스쿠니 신사에 봉헌된 대석등롱과 부조는

일본의 패전 이후에도 보존 및 보호가 이루어졌고, 현재까지 큰 훼손 없이 야스쿠니 신사의 한 곳을 장식하고 있다.

이상의 정황을 종합하면, 일제의 국가 총동원령 이후에는 네즈 가이치로가 사망하여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지만, 네즈 가이치로의 가문과 기업이 그의 뜻을 이어받은 것으로 보인다.

2. 잊힌 전범, 네즈 가이치로

앞 절에서 정리하였듯이, 네즈 가이치로는 일제의 국가 총동원령 이전부터 의도적이며 적극적으로 군수품 납품에 참여하였다. 또한, 철도 등 유통에도 관여되어 있고, 강제 동원 등에도 관련되어 있다. 특히, 그와 그의 가문이 운영한 부국징병보험은 전쟁의 적극적인 옹호자였다. 다시 말해, 네즈 가이치로와 그 관계자, 관계 기업은 전범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을까? 여기에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당사자가 일본의 패망 이후에 인식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당사자는 네즈 가이치로이고(그림 11), 그는 일본의 패망 전인 1940년에 사망하였다. 그가 패망 이전에 사망하면서 그의 행적과 그의 회사들은 주목받지 않게 되었다.

네즈 가이치로가 사망하면서 핵심적인 줄기가 사라졌고, 전범 재판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일본에서 생산된 네즈 가이치로의 자료에서는 한반도와 중국 동북지역에서의 활동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실제 관련 자료는 모두 파편화되어 곳곳에 흩어졌고, 대부분 비매품 자료이거나, 너무 오래된 자료이기에 확보 자체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 그 결과, 네즈 가이치로는 전범에 대한 논의도 없이 일본의 기업가, 혹은 철도왕으로만 알려지게 된다.

둘째는 기호 음료를 중요한 요소로 여기기 어렵다는 점이다. 당시의 연구와 관련하여 강제 동원이나 강제 징용, 무기 생산 등 더 중요한 문제가 널리 알려져 있었고, 그러한 문제들이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기호 음료 역시 중요 군수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제는



[그림 11] 네즈 가이치로 사진
(根津翁傳記編纂會 1961)

잇힌 문제를 인지하여 새로운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혹자는 731부대 유적 형성 이전에 네즈 가이치로가 대일본맥주주식회사에서 이탈하였기에 731부대 및 전범 행위와 관련이 거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731부대에 납품된 기호 음료는 네즈 가이치로가 그 기반을 닦았다. 사이다의 적극적인 군수품 납품과 생산은 네즈 가이치로가 완성하였고, 납품 방식으로 활용된 한반도에서 중국 동북지역까지 개설된 철도에도 그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혹자는 전범 행위를 과거 일본 정부와 군이 주도하였으며 민간 기업은 거의 참여하지 않았고, 만약 참여하였더라도 일제의 국가 총동원령 상황에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변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731부대 유적을 통해 잇힌 전범 행위가 드러나게 되었고, 그 기반에 네즈 가이치로가 있었다. 기업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득을 취하였고, 이것은 분명한 전범 행위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네즈 가이치로와 그 가문, 관련 기업에 대한 전범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731부대 유적이 발굴되지 않았다면 네즈 가이치로 및 관련 기업의 전범 행위는 인식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731부대 유적이 남아있었고, 해당 유적에 대한 발굴 조사 보고서가 발간되었으며, 여러 유물이 전시되었기 때문에 이 연구가 시작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731부대 유적이 있었기에 그 배경에 있는 네즈 가이치로의 존재와 관련 전범 행위를 알 수 있었다.

Ⅵ. 맺음말

이 연구는 731부대 유적에서 출토된 음료 유리병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처음 자료를 접하였을 때, '731부대 세균실험실에서 왜 맥주병이 출토되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자료를 검토한 결과, 731부대에서는 맥주뿐만 아니라 사이다와 와인 등 다양한 기호 음료가 보급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 기호 음료는 일본에서 생산되었는데, 하얼빈까지 어떻게 이동될 수 있었을지에 대한 의문이 다시 생겨났다. 이에 생산 배경과 이동 과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생산과 교통 상황을 추적하였다.

연구 결과, 사이다와 맥주 등의 기호 음료는 러일전쟁 이후부터 군수품으로 인기가 높았고, 1920년대에 맥주 회사 사장이던 네즈 가이치로가 사이다 회사를 적극적으로 합병하였으며, 그는 1920~1930년대에 호황이었던 군수품 납품에 자발적으로

열중하였다. 네즈 가이치로와 그의 가문은 운송과정에도 영향력을 미쳤으며, 그 외에도 부국징병보험처럼 다양한 행위로 인해 전범가로 판단될 수 있는 정황과 근거들도 드러났다. 물론, 731부대 유적이 조성된 1940년에는 네즈 가이치로가 사망한 해로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의 기업과 네즈 가문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관여되고 있었다.

혹자는 731부대 유적과 네즈 가이치로의 공존 시기가 1년 미만이므로 너무 과한 추론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분명한 점은 731부대에 납품된 보급품의 생산과 유통 기반 대부분을 네즈 가이치로가 완성하였으며, 그것이 의도적인 이익 행위였다는 점이다. 일본의 동아시아 침략은 731부대 등장 이전부터 있었고, 네즈 가이치로는 1920년대부터 전쟁 특수를 누렸다. 그는 러일전쟁과 만주사변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림과 글을 야스쿠니 신사에 봉헌하기도 하였다. 즉, 네즈 가이치로와 그의 관계자들은 전범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이처럼 731부대 유적 및 그 출토품처럼 근현대의 물질자료는 전범과 관련하여 정치적, 군사적, 사회적 관계를 밝히는 유용한 고고학적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잊힌 전범가와 전범기업을 접근할 수 있도록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거나 관련 기록이 파편화되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경우에는 특정 사건에 대해 한 번에 역사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731부대 유적과 유적 출토품은 역사의 직접적인 증거가 되었고, 역사 연구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고 있다. 이처럼 잊힌 역사를 조명하는 것 또한 근현대고고학의 주요 역할 중 하나이다.

근현대고고학 중 일본의 산업유산을 다룬다는 점에서 산업고고학에 속하며(김동일 2020, 2024), 동시에 전쟁터와 그곳에서 출토된 물질자료를 다룬다는 점에서 전적지고고학에도 속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김동일 2024). 다만, 일본의 산업화 과정을 바탕으로 전적지에 대한 연구와 그에 관련된 사람 등을 다룬다는 점에서 전적지고고학에 더 가깝다고 본다. 즉, 산업고고학적인 연구이기도 하지만, 전적지고고학에 더 가까운 연구 사례로 볼 수 있다.

* 이 논문은 2023년 7월 7일에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제1분과에서 발표한 「근현대 사이다의 기원 및 유통과정의 의미」와 2023년 11월 4일 제47회 한국고고학 전국대회 자유패널에서 발표한 「근대 일본의 기호음료 생산 과정 및 유통에 대한 추적 - 사이다와 맥주를 중심으로 -」를 수정 및 보완한 글이다.

참고문헌

- 단행본 -

- 高木宏之, 2010, 『寫眞に見る滿洲鐵道』, 潮書房光人社.
- 富國生命保險相互會社, 1981, 『富國生命五十五年史』, 大日本印刷株式會社.
- 根津翁傳記編纂會, 1961, 『根津翁傳』.
- 埼玉縣朝鮮人強制連行真相調查團, 1998, 『朝鮮人強制連行調査の記録 埼玉 中間報告』.
- 南滿洲鐵道株式會社庶務部調査課, 1927, 『南滿洲鐵道株式會社二十年略史』, 南滿洲鐵道.
- 東京清涼飲料協會編, 1975, 『日本清涼飲料史』.
- 東武鐵道株式會社, 2025, 『東武鐵道125周年誌』, 株式會社美松堂.
- 濱田徳太朗, 1936, 『大日本麥酒株式會社三十年史』.
- 澁澤榮一傳記資料刊行會, 1957, 『澁澤榮一傳記資料』第16卷, 澁澤青淵記念財團龍門社.
- 矢倉伸太郎・生島芳郎, 1986, 『主要企業の系譜圖』, 雄松堂出版.
- 植野録夫, 1940, 『滿洲開拓民入植圖』, 『ンサイス滿洲國地圖』, 東京地形社.
- 阿部薫, 1935, 『朝鮮功勞者銘鑑』, 民衆時論社.
- 李陳奇, 2018, 『侵華日軍第七三一部隊舊址細菌實驗室及特設監獄考古發掘報告』, 科學出版社.
- 立石勝規, 2009, 『なぜ三ツ矢サイダーは生き残れたのか』, 講談社.
- 정재정, 2022, 『일제의 조선 교통망 지배 - 해운·철도·소운송·도로·항공』, 동북아역사재단.

- 발굴조사 보고서 -

- 宮崎県都城市教育委員會, 2017, 『中町遺跡(第5次調査) - 中心市街地中核施設整備支援事業に伴う埋藏文化財發掘調査報告書 -』, 都城市文化財調査報告書 第129集.
- 山梨県教育委員會・建設省關東地方建設局甲府工事事務所, 1998, 『鰐澤河岸跡 - 明神白子地區埋藏文化財發掘調査 -』.
- 上田市教育委員會, 2010, 『上田城跡(上田藩主居館跡)』, 上田市文化財調査報告書 第109集.
- 盛岡市教育委員會, 2021a, 『盛南地區遺跡群發掘調査報告書Ⅲ 一道明地區土地區畫整理事業關連遺跡平成30・令和元年度發掘調査 - 細谷地遺跡』.
- _____, 2021b, 『盛南地區遺跡群發掘調査報告書Ⅳ 一道明地區土地區畫整理事業關連遺跡令和2年度發掘調査 - 細谷地遺跡』.

- 논문 -

- 강정원, 2018, 「일제 전시체제기 朝鮮林業開發株式會社の 설립과 운영」, 『역사문화연구』66,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캠퍼스) 역사문화연구소.
- 김동일, 2020, 「한국의 산업고고학 연구」, 『영남고고학보』88, 영남고고학회.
- _____, 2022, 「제731부대 유적」의 고고학적 조사 성과와 그 의미, 『동북아역사논총』78,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24, 「한국에서의 근현대고고학 개념 정립과 전망」, 『고고광장』34, 부산고고학회.
- 山口一臣, 2010, 「日本ビール業界への警鐘：麒麟麥酒100年に見る日本ビール業界の課題」, 『成城大學經濟研究』189, 成城大學經濟學會.
- 임채성, 2015, 「전시하 만철의 수송전(1937~1945) - 수송통제와 그 실태 -」, 『동방학지』170,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 前田廉孝, 2020, 「帝國日本の臺灣・關東州鹽需給と流通主體 - 一九八〇—一九一〇年代を中心に」, 『史學』89-3,

三田史學會.

田中正敬, 2014, 「關東大震災時の朝鮮人虐殺と地域における追悼・調査の活動と現状」, 『大原社會問題研究所雑誌』669, 法政大學大原社會問題研究所.

總務課廣聴廣報擔當, 2008, 「根津嘉一郎 その生涯と遺したものたち」, 『廣報やまなし』45, 山梨市.

秋山久美子, 2006, 「清涼飲料水の近代史(第2報) 一昭和元年から40年まで一」, 『學苑・近代文化研究所紀要』790, 昭和女子大學.

- 홈페이지 -

名古屋大學大學院法學研究科, 「根津啓吉」, 『日本研究のための歴史情報』, (<https://jahis.law.nagoya-u.ac.jp/who/docs/who8-17099>), 홈페이지 게시 자료, 2025년 4월 12일 접속.

山梨市, 「根津記念館について」, 『根津嘉一郎と根津記念館』, (<https://www.city.yamanashi.yamanashi.jp/site/nezu-kinenkan/2033.html>), 홈페이지 게시 자료, 2025년 4월 12일 접속.

靖國神社, 「遊就館の歴史」, 『靖國神社』, (<https://www.yasukuni.or.jp/yusyukan/>), 홈페이지 게시 자료, 2025년 4월 19일 접속.

Asahi, 「「三ツ矢シャンペンサイダー」の發賣」, 『ブランド史／三ツ矢』, (<https://www.asahiinryo.co.jp/entertainment/asahiinryohistory/mitsuya/>), 홈페이지 게시 자료, 2024년 11월 13일 접속.

Significance of Glass Beverage Bottles Excavated from Unit 731 Sites

- Focusing on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Cider and Beer -

Kim, Dong-il(Academic Research Professor, The Institution for Marine and Island Cultures, Mokpo National University)

The excavation of the Unit 731 ruins revealed the involvement of modern Japan in the production of beverage bottles, as Japanese inscriptions were observed on the glass bottles. This author noted the presence of Japanese-produced beverage bottles at the ruins of Japanese military units in China, and the author believes that understanding the production, transportation, and background of these bottles can illuminate the social condition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The reported beverage bottles included six beer bottles and two liquor bottles, but the analysis confirmed they were five beer bottles, one wine bottle, and two cider bottles. The overwhelming number of unreported beverage bottles identified at the Unit 731 Exhibition Hall, coupled with the fact that these items were collected after the site's decommissioning, suggests that beverages like these were commonly provided when Unit 731 was active.

The cider excavated from the remains of Unit 731 was supplied as a military provision by Kaichiro Nezu to the Japanese army from the 1920s and 1930s until the 1940s, when the Ad Hoc prison and Biological laboratory operated in Harbin. Despite Japan's general mobilization during this period, which caused most businesses to shrink, the Dainippon Brewery Company, responsible for supplying cider and beer as military provisions, continued to thrive.

Although it is often claimed that Kaichiro Nezu ceased involvement with the Dainippon Brewery Company in 1933, in reality, this heir to the Nezu family was appointed to the board of directors, ensuring that the Nezu family maintained control over the company.

Kaichiro Nezu's involvement in the construction of the Korean Peninsula railroad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transportation of military supplies. Furthermore, as president of the Fukoku Chohei Insurance Company, Nezu and his family profited immensely from both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munitions industry, not only during World War II but also before it. Therefore, the enterprises associated with Kaichiro Nezu and his family should be classified as war criminal entities or war criminal companies.

These issues have been excluded from discussions because beverages, although part of military provisions, were not direct wartime weapons, and the Fukoku Chohei Insurance Company was relatively unknown in Korea. Most importantly, Kaichiro Nezu's death shortly before Japan's defeat further limited scrutiny.

With the excavation of Unit 731's remains and the release of archival materials, however, the groundwork has been laid to bring attention to these short-lived war criminal entities and their associated enterprises.

Key words : Cider, Sprite, Unit 731, Industrial Archaeology, Industrial Heritage, Modern and Contemporary Archaeology, Nezu Kaichiro, War Criminal